

# “개혁없이 미래없다” 특성화·전문화 시급

## 백 년 지대

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이 세기말까지 혼란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사제간 극도의 불신감 등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교실붕괴현상까지 야기되고 있으며 수험생부족으로 상당수 전문대의 존폐위기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지역 교육을 책임져야 할 상이담마저 본래의 미는 퇴색된지 오래고, 취업준비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지나간 세기의 교육현안 및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편집자주>

## 초중등교육

지난해말까지 경북지역 교육상황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비롯 경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 경북지부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구성원간 갈등이 연속됐다. 또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사수의 절대부족으로 교육의 질

**학생·교사부족 농어촌학교 공동화**  
**사제간 불신 만연 교실 붕괴위기**  
**교육대 신설·교원 교류대책 절실**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다 학생수 부족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등학교의 공동화현상까지 발생했다.

여기에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저하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등 사제간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등 교실붕괴의 위기가 어느때보다도 심화됐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도승회경북도교육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 동창회등의 반대가 예상외로 거센데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통·폐합 저지운동에 머물지 않고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까지 펼치기로 하는등 새천년 벽두부터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이 정책은 농어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유독 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 시끄러운 것은 다수의 벽·오지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상 대상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사부족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교육감은 구립 2일 도의회답변을 통해 '2000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부속자원은 775명'이라면서 '이중 임용교사 및 추가모집, 기간제교사등을 확보해도 320여명이 부족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은 도교육감의 이같은 전망보다도 더 심각하다는게 지역교육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이는 초등학교 임용대상자들이 현재 시공간 교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농어촌지역을 회피하고 있으며 근무중인 교사들마저 도시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하는등 교사부족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실시된 2000학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에서

경북지역의 경우 모집인원 445명에 107명만 응시, 정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다 2000년 2월말자로 명퇴를 신청한 도내 초등학교원수가 228명에 달하고 있어 초등학교사 부족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등교사들도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등 교사부족현상이 새천년 경북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정책이 불거질 무렵부터 교사부족사태가 예견됐지만 교육당국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원인이라는 비난이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지역에도 교육대 신설 및 교원의 시공간 교류 허용 등 특

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관계자들의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열정 및 사명감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되면서 교육현장의 신뢰감이 지속적으로 저하, 사제간의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모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로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파벌치 교사들은 제자를 성폭행,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사

건도 수차례 발생했다.

구미형곡중 김호열교장은 '현재 교단에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고전이 된지 오래다'며 '황금만능주의가 빛을 교권경시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실추된 교권을 대변했다. 그는 또 파벌치한 일부 교사들때문에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육현장의 주역이 되고 있는 대다수의 청렴한 교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온갖 수난을 당하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수의 감소도 좌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98년 도내에서만 무려 5천명의 학생이 감소한데 이어 99년에도 6천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는등 매년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지역 고교가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일부 시군교육청에서는 사립교에 대해 학급수 감소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위권대학들이 학내문제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반면 중하위권 및 대부분의 전문대들은 교육의 질향상보다는 오로지 정원 확보에만 매달리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일부 4년제대의 경우 2000학년도 특채전형에서도 지원자격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 실질적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등 상대적으로 입시일정이 늦은 전문대의 원성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90년대들이 무조건적인 전문대신설 및 무리한 증원을 허가해 준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2000학년도를 기준으로 지역 47개대학 및 전문대의 총모집인원은 9만9천5천여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해 대구 경북지역 고3생의 경우 지난해 9만1천561명

## 대학교육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22개 4년제대와 25개 전문대중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위기상황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상당수 4년제대는 교육부가 21세기를 겨냥, 시도하고 있는 두뇌한국21(BK21)사업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전문대는 교육수준 향상보다는 수험생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의 일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성폭행, 이시대 지식인들을 압몰케 했다.

또 상당수 대학의 교수 및 재단의 '밥그릇싸움'도 속지 않고 있으며 일부대학과 전문대의 총·학장은 교수채용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구태를 재연하며 검찰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감수했다.

상위권대학들이 학내문제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반면 중하위권 및 대부분의 전문대들은 교육의 질향상보다는 오로지 정원 확보에만 매달리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일부 4년제대의 경우 2000학년도 특채전형에서도 지원자격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 실질적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등 상대적으로 입시일정이 늦은 전문대의 원성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90년대들이 무조건적인 전문대신설 및 무리한 증원을 허가해 준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2000학년도를 기준으로 지역 47개대학 및 전문대의 총모집인원은 9만9천5천여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해 대구 경북지역 고3생의 경우 지난해 9만1천561명

**연구비 유용 '밥그릇싸움' 명예 실추**  
**무리한 전문대 신설 근시안적 행정**  
**'모집정원=수험생수' 학생확보 혈안**

(경북 4만6천569명, 대구 4만4천992명)으로 재수생을 포함해도 10만명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미 '모집정원=수험생수'사태에 돌입했으며 상위권 대학의 서울유출등을 감안할 때 위시대 대학 및 전문대 비인기 학과의 미달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99학년도에 경우 경북지역 전문대 대부분이 미달됐으며 특히 이중 8개전문대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 18개전문대의 전체미달인원은 6천691명으로 전국 161개전문대의 2만1천566명의 30%가 넘고 있으며 98학년도에 1천908명에 비해서는 1년사이 3.5배나 늘어난 수치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올해 지역 고3생수가 지난해보다 1천200여명이 줄어드는 데다 2002학년도에 경우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8만2천81명에 그칠기 때문이다.

현재 중3생이 대입수험생이 되는 2003학년도에는 대구 3만 5천961명 및 경북 3만5천721명 등으로 총 7만1천682명에 그치면서 2000학년도보다 무려 2만명 이상의 응시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아랑곳않고 지역 대학들은 밥그릇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전문대들은 수년째 계속돼 온 제실파격의 구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K21사업이 활성화돼 수도권대학들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환골탈태할 경우 지역 상위권대학들도 3류로 전락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많은 각계전문가들은 21세기를 경쟁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은 지난간 세기까지는 새천년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특성화·전문화전략을 강화, 지역교육의 토양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기자】



謹賀新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천년 새마음 새각오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권성원
- 동해화학교(주) 대표이사 홍삼
- (주)영남레미콘 대표이사 김상철
- 포항종합제차장 대표이사 서인득
- 포항 1대영학 학장 하민영
- 미주제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소